

케어링(Caring)의 역사학으로

-- <역사학의 사회적 유용성> 문제에 대하여

오다나카 나오키(小田中 直樹) (일한역사가회의, 2016년 11월, 도쿄)

1. 들어가는 말

본 세션은 <현대사회와 역사학> 가운데서도 특히 <대학에서의 인문학과 역사학>이라는 전체 주제에 입각해, 현대라는 시대에 역사학을 대학에서 교육하는 데 사회적인 유용성이 있는지, 만일 그러한 유용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 또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론적 답변 제시를 그 과제로 한다.

이 과제에 대해 필자는 다음 3단계를 거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일본에서 역사학의 사회적 유용성 여부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둘째, 오늘날이 어떠한 시대이며, 사회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지식(知, Knowledge)란 어떠한 것인지를 고찰한다. 셋째, 역사학은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지,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인지 검토한다.

2. 역사학의 약체화, 역사인식의 과잉화

20/21 세기 전환기 이후, 일본에서는 ‘역사학의 과소화, 역사인식의 과잉화’라 부를 만한 역사에 대해 일견 상호모순되는 양대 경향이 동시진행하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사태는 한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 언정 동일하게 있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역사인식의 과잉화>에 대해서는 본 세션의 주요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기술을 하지 않겠으나, 잠시 언급해 두도록 한다. 주지하다시피,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세계 도처에서 역사인식의 ‘해빙(해빙트)’이 일어났다. 즉 그전까지 ‘동서 대립’이라는 큰 흐름에 딱혀 동결 보존되었던 작은 역사인식 간의 대립과 왜곡이 재차 활성화돼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다양한 문제가 역사인식 차원에서 논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독도 / 다케시마 문제와, 중군위안부 문제, 난징학살문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섬들의 귀속을 둘러싼 대립이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역사인식’을 키워드로 하는 격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역사인식의 과잉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역사인식의 과잉화>는 본래 역사인식에 견고한 기반인 학술적 지식을 제공한다. 역사학을 활성화시키고, 역사학자의 활발한 연구교육활동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러한 전제와는 그 거리가 멀다. 역사학자의 연구교육활동은 일본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사학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학문(虛學)으로서 대학에서의 연구교육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필자가 말하는 <역사학의 과소화>가 이것이다. 더욱 말하자면, 역사학뿐만 아니라 널리 인문학(휴머니티즈), 나아가서는 인문사회과학의 총체가 사회적 유용성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사태가 최근 수년 동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역사학의 과소화>, 나아가서는 인문사회과학 총체의 과소화 사례로서 두 가지 담론(discourse)을 들어보겠다.

첫 번째 사례는 2014년 10월 7일, 문부과학성 ‘실천적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제도화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경영 컨설턴트인 도미야마 가즈히코(富山和彦) 위원(주식회사 경영공창기반 대표이사 CEO) 이 제시한 페이지이다.¹ 富山는 자료에서 기존 대학을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매우 고도의 프로페셔널 인재의 배출’을 지향하는 G (글로벌) 형 대학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 보유자의 배출(직업훈련)’을 담당하는 L (로컬)형 대학으로 나누고, 후자인 인문사회과학계 학부에서는 ‘세익스피어와 문학개론이 아닌 관공업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와 현지의 역사, 문화 명소에 대한 설명력, 그리고 마이클 포터나 전략론이 아니라 부기와 회계 및 회계소프트 사용법을, 그리고 헌법과 형법이 아닌 도로교통법과 대형 2중 면허와 대형 특수 2중 면허의 취득’을 교육해, ‘문과의 아카데미 라인(L대학에는 기존 문과 학부가 대부분 불필요) 교수는 사퇴하도록 하거나, 직업훈련교원으로 재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문학도 경영학도 헌법학도 형법학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자칭 ‘일본의 최고 전략 컨설턴트 중 한 명’인 자의 인문사회과학관이자 문학론이다.

이 정도라면 한 비즈니스맨의 망상...이 아닌 신념의 산물에 불과하며, 적어도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교육이 의의가 부정되지 않고 있다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문부과학성 회의에서 나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예상할 수 있듯이 사태는 그러한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 사례는 2015년 6월 8일, 문부과학성이 발행한 통보 ‘국립대학법인 등의 조직 및 업무 전반의 재검토에 대하여’이다.² 여기에서 국립대학은 ‘교원양성계 학부 및 대학원, 인문사회과학계 학부 및 대학원에 대해서는 18세 인구의 감소와 인제수요, 교육연구수준의 확보,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한 조직 재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폐지와 사회적 요청이 높은 분야로의 전환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이 통지의 대상은 실제로는 대학의 약 10%(2015년 775개 교 가운데 86개 교)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국립대학뿐이다.

¹ 해당 페이지는 다음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outou/061/gijiroku/_icsFiles/afeldfile/2014/10/23/1352719_4.pdf

² 해당 페이지는 다음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outou/062/gijiroku/_icsFiles/afeldfile/2015/06/16/1858924_3_1.pdf

그러나 이는 교육행정이 인문사회과학 그 자체에 대해 불요불급의 낙인을 찍은 것으로 간주돼, 학술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정계, 시민사회에 큰 반향, 특히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해당 통지들·사실상 부정하는 문서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사회과학은 오늘날 그 대부분이 사회적 유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가 정재계의 일부에 존재하며, 실제로는 연구교육정책에 영향을 주기 일보직전까지 와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유용성이 부정되고 있는 학문영역에 역사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역사인식의 과잉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학의 과소화>...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3. 포스트 근대형 사회 메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역사학

이 문제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떠한 사회인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때 출발점으로서는 시사적인 것이 금세기 초엽에 교육사회학자인 혼다 유키(本田由紀)가 제시한 ‘하이퍼 메리토크러시(Hypermeritocracy)’라는 개념이다.³本田는 1970년대에 제창되고 지금은 일부 전문가 사이에 통용되는 말(buzzword)이 된 포스트 모더니즘론을 원용해,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을 포함한 세계를 글로벌화, 정보사회화, 서비스 사회화, 소비사회화의 산물인 <포스트 근대사회>라 정의한다. 포스트 근대사회에서는 한편으로 노동형태가 유연화되고 사회적 지위가 다원화되는 등, 개인의 ‘자유’ 영역이 확대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가 추구됨으로써 ‘바이오 폴리틱스(Bio-politics)’(미셸 푸코)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와 추적에 이르는 관리사회화가 진전된다. 이러한 포스트 근대사회를 ‘위너’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지식’이 아닌, 전인격 차원에서 통괄되는 ‘기술(skill)’이 필요하다.本田는 포스트 근대사회에서의 능력은 개별지식이 아닌 기술 차원에서 파악, 평가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능력을 ‘포스트 근대형 능력’이라 명명했다. 포스트 근대형 능력을 구성하는 것은 의욕, 창조성, 개성, 능동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으로, 현대 일본의 교육계에서 ‘살아가는 힘’이라 불리는 것이다. 포스트 근대란 포스트 근대형 능력의 파다에 따라 사회적 랭크가 배분되는 ‘하이퍼 메리토크러시’ 시대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本田의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을 추월하는 단계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은 특히 경제분야에서 1980년대 후반의 일시적이며 인위적인 버블시기를 거쳐, 추구해야 할 목표와 모델을 상실한 뒤의 ‘자기찾기 여행’인 일종의 선진국병을 계속해서 앓고 있다. 그리고 이 선진국병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존재로 기대를 받았던 것이 ‘살아가는 힘’을 갖춘 인재이며, 소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육기관은 이러한 인재를

3 혼다 유키(本田由紀)『多元化する「能力」と日本社会』 다원화되는 ‘능력’과 일본사회, NTT 出版, 2005).

육성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육기관이 공급해야 할 지식은 개별지식이 아닌 메타 지식의 차원, 또는 개별지식을 얻는 노하우가 아닌 메타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기술 차원에 조준되게 되었다. 아마도 한국에서도 사태는 비슷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은 하이퍼 메리토크러시의 우월이라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 왔을까. 문체 자체가 지식의 공급이라는 교육기관의 근간에 관한 것인 만큼, 민감하게 대응했다고 하고 싶으나, 일본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포스트 근대사회화의 임팩트가 특히 경제분야에서 현저했던 것을 반영해, 기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기업이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수년 전부터 일본의 종합전기제조업체의 간부후보생 연구강사를 맡고 있는데, 연수내용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로 엔지니어인 연수생에게 역사학을 강의한다'는 것이다. 해당 연수는 '리버럴 아트 연수'라는 이름 아래, 철학, 역사학, 일본문화론이 각각 강의되었다. 종합전기제조업체의 간부들은 이러한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물론 이 강의에서 요구되는 지식이 개별지식과 노하우가 아닌, 메타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상의 현상 인식, 요구되고 있는 지식의 성격, 교육기관의 바람직한 형태를 염두에 두면, 앞서 기술한 富士의 제언도 포스트 근대형 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식체편 유무라는 논점을 둘러싼 대학과 기업의 온도차를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富士는 기업의 논리와 현상 인식을 공유하고, G형 대학에 메타 지식과 기술의 공급을, L형 대학에 개별지식과 노하우의 공급을 각각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주장에는 일정한 현실감(actuality)을 느낄 수 있다. 포스트 근대형 사회에서는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방법은 금세 진부해지기 때문에 富士의 현상 인식은 불충분하며, 지나치게 진부하다. 기업의 이론을 관철한다면, 모든 대학에 메타 지식과 기술을 공급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을 요구해야 했다. 굳이 말하자면, 이러한 어중간한 제언이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논의를 역사학으로 되돌려보자. 그렇다면 메타 지식과 기술을 공급하는 학문으로서 역사학을 재구축(restructure)할 수 있을까. 또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먼저 확인해야 할 바는 개인으로서 연구기관에서, 또는 (일본에서는 국비가 투입되므로 어느 정도 한정되나) 사립학교에서 연구교육의 대상이 되는 역사학에 대해 이러한 종류의 기업, 경제계,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금으로 하는 이상,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또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학(역사연구)은 공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교육, 즉 인재육성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과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떠한 것이었나'(Leopold von Ranke)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연구기관의 책무이자 존재의의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학에 한정할 경우, 필자는 역사학을 재구축해 메타 지식과 기술을 공급하는 학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러한 운영이 어느 정도 한정을 전제로 하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 전자의 재구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후자, 즉 ‘역사학은 메타지식과 기술을 공급해야 하는가. 공급할 경우 어떠한 것이 그 대상이 되는가’라는 문제를 검토한다.

전술한 本田는 포스트 근대형 능력의 파다에 따른 계층(hierarchy)을 축으로 한 포스트 근대형 사회,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구동시키는 하이퍼 메리토크러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이퍼 메리토크러시는 개인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최종 산출물에 근거해 평가를 내리는 시스템이다. 개인은 성격, 인간관계, 행동, 일상생활 등, 사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감시받고 평가된다. 이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사회이다. 그는 포스트 근대형 사회가 실현하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점과 개인 인격의 계속적인 모니터링이라는 단점을 비교한 뒤, 후자가 전자를 웃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필자는 本田의 개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규율훈련형 권력(푸코) 바이오 폴리틱스, 환경관리형 권력(아즈마 히로키, 東浩紀)로 이어지는 관리사회론 계보를 고려하면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⁴ 또는 매일의 생활을 상기해도, 예를 들어 ‘안심, 안전’이라는 키워드 아래, 사람들이 감시카메라와 주민 순찰의 증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 전인격이 평가되는 인문사회과학계 학부 학생의 취업활동을 지켜볼 때, 또는 취업활동을 개별지식, 노하우의 파다 평가로 거의 결정되는 단순건조(dry)하다고 할 수 있는 현행 입학시험제도와 비교할 때, 포스트 근대형 사회의 답답함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필자는 메타지식과 기술, ‘살아가는 힘’이라 불리는 것, 즉 의욕, 창조성, 개성, 능동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포스트 근대형 사회이든 아니든 매우 중요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은 이러한 지식을 공급해야 하며, 따라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학도 또한 이러한 과제에 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⁴ Foucault, M., *Surveiller et punir* (Paris: Gallimard, 1975) ; 아즈마 히로키(東浩紀), 『情報社会論・第3回(정보사회론, 제3회)』『中央公論』2002년 9월호, 2002]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근대형 사회가 안고 있는 답답함을 타파할 수 있는 메타지식과 기술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넓게는 교육기관, 좁게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학이 이러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本田가 제시하는 포스트 근대형 능력과, 또는 기업과 경제체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바람직한 메타지식과 기술을 조사하면, 여기에는 메타지식과 기술 차원에서 중요한 지식이 한가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비판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다. 이는 매우 기묘한 일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이다. 비판적 사고력은 포스트 근대형 사회에서 증시되는 메타지식과 기술 차원에 속하지만, 포스트 근대형 사회 자체에도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답답함을 타파해 ‘그 앞’을 전망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력이란 최근 일부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Critical Thinking’과 비슷하면서도 이질적인 것이다. 즉, 후자는 사전에 설정된 틀 안에서 (그 나름대로) 비판적인 분석과 논의를 시작하는데 비해, 전자는 틀 자체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체를 의심하는 자세를 유지하려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제 사태는 명료할 것이다. 역사학은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학문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더욱 말하자면, 이러한 재조합은 역사학의 잠재적 가능성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학은 현실적 실학이며, 실학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⁵

· 물론 그러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축하면 좋은가.

4. <현실주의> 시대에서 비판적 사고력으로서 <듣는 능력>

역사학은 이를 수행하는 역사학자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역사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의 역사인식에 강하게 규정된다. 그렇다면 21세기가 시작된 현실에서 사람들 사이에 지배적인 역사인식이란 어떠한 것일까.

이러한 점을 검토하는데 있어 먼저 시사적인 것은 프랑스의 고대사학자인 프랑소와 아르토그(Francois Hartog)가 제시한 ‘역사의 체제(régime d’historicité)’라는 개념이다.⁶ 역사의 체제란 사람들의 역사인식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3가지 시간이 분절화되어, 접합되는 양식을 의미한다:

⁵ 본 세션에서는 논의의 주요 대상이 아니나, 연구기관에서의 역사학자 영위를 비롯한, 이른바 순수한 역사연구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필자는 역사연구에 대한 외부인과의 비학술적인 고려를 아무런 배려없이 적용하는 것은 역사연구를 ‘동반자 사학’으로 실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르쳐 준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Everything is political). 따라서 순수하게 실증주의적이라고 자칭하는 역사연구는 정치적 차원에서 의식이 규정된 연구자가 수행하며, 그 산출물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순수한 역사연구도 또한 실학이며, 또 실학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역사학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은 철저히 학술적이어야 하며, 자기자신 및 산출물이 정치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치성의 내실에 대해 항상 반성 (self-reflection)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⁶ Hartog, F., *Régimes d’historicité* (Paris: Le Seuil, 2003).

아르토그에 따르면, 서양과 서양의 지적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역사 체제는 과거주의(passéisme)、 미래주의(futurisme)、 그리고 현재주의(présentisme)로 변화해 왔다. 즉 거의 18세기까지 역사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 국민국가의 형성과 학술적인 역사학의 제도화와 함께 역사는 다가올 미래의 ‘목적’을 향해 진화하는 시간의 흐름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르러 역사는 현재를 떠받치는 존재로서, 또 현재 시점과 니즈에 따라 재구축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의 역사인식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현재주의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학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입각해 어떠한 비판적 사고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를 비판적으로 상대화하기 위한 교훈을 주는 원천으로 역사를 정립시키는 것과, 현재를 비판하기 위해 바른 ‘미래’를 제시하고 이를 향해가는 목적론적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현재주의적 역사인식 시대에서 무의미한 영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되는가.

다소 우회해서 생각해 보자. 비판적 사고력이라 해도 다양한 것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경시되어 왔지만 오늘날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하며 유익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 관심과 함께 역사학, 넓게는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철학자인 와시다 기요카즈(鷲田清一)가 실로 세기전환기에 제창한 ‘듣는 힘’에 주목하게 된다.⁷ 鷲田에 따르면, 기존 철학에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던 것은 ‘듣는’ 행위이며, 듣고자 하는 의사이다. 지금까지 철학자는 세계를 해석하든 세계를 번역하든(칼 마르크스) 기본적으로 ‘말하기와 쓰기’에 역점을 두어왔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해 철학의 쇠퇴를 가져왔다. 鷲田는 이에 대해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듣는 것은 눈 앞에 있는 특정의, 즉 이름을 가진 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자기이해의 장을 여는 동시에,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함으로써 듣고 있는 우리도 경험의 변용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요컨대, 듣는다는 것은 개인단위라는 점과 상호변용의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이 실은 역사학의 특징과 정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빌헬름 빈델반트(Wilhelm Windelband)의 고전적 정의에 의하면 역사학은 법칙정립과학이 아니라 개성기술과학이며, 대량의 현상을 추상화, 데이터화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현상을 거론해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또 역사학에서는 일찌기 역사학자의 ‘질문’을 중시하는 ‘문제사(histoire-problème)’적 방법론이 강조되어 왔는데, 20세기에 이르러 연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의 주체인 역사학자가 자신의 상황을 반성하고 자기변용의 계기로 한다는 ‘자기반성적(self-reflexive)’인 학문영역이라는 점이 중시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역사학은 역사학자가 과거라는 타자와 접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커뮤니케티브한 학문영역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역사학의 듣는다는 행위가 중요한 의미와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7 와시다 기요카즈『(鷲田清一)『「聴く」ことの本質(듣는 힘)』(筑摩書房・ちくま学芸文庫, 2016, 초판, 1999)。

예를 들어 중군위안부에 관한 문제이다.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러 담론이 첨예하게 대두되어 왔다. 현시점(2016년 6월)에는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외상회담에서의 정치적 합의가 찬반양론이 존재한다고는 해도 하나의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합의에 관해 필자의 의견을 논하는 것은 (동아시아사에 관한 학술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삼가겠지만, 1991년에 부각된 이래 이미 4반세기에 걸친 해당 문제의 취급에 대해 느낀 것은 우리의 듣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분명히 논쟁은 있었다. 전문가의 연구도 있었다.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집필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우리의 지식을 풍요롭게 하였다. 학술적으로 보아 중군위안부 문제에 역사학자가 이런 역할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군위안부의 증언에 충분히 귀를 기울였을까. 또는 그녀들이 말하고 싶다고 느낄 때까지 옆에서 조용하게 기다렸을까. 중군위안부의 경험을 고유명사 차원에서 듣고, 이를 통해 화자인 중군위안부와 청자인 역사학자의 양측 경험이 변용되어 가는 것은 과연 불가능할까.

정리해 보도록 하자. 역사학은 그 연구와 교육을 통해 포스트 근대형 사회를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메타지식과 기술을, 특히 여기에서 간과되기 쉬운 비판적 사고를 듣는다는 것, 즉 자료와 증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행위를 통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역사학의 사회적 유용성이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역사학, 적어도 문학에서의 역사관련 연구교육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일까.

5. 나 가는 말

듣는다는 행위가 갖는 힘을 강조하고, 그 앞에 커뮤니케티브한 상호변용과 이에 근거한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전망한다는 행위 — 이는 케어(care) 또는 케어링(caring)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케어 이론을 주도해 온 밀턴 마이어오프(Milton Mayeroff) 에 따르면 케어란 타자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귀속감 획득과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상호의존적이며 쌍방향적인 행위이다.

또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에 따르면 케어에 근거한 이론은 타자의 니즈에 부응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없도록 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분개해결을 도모한다는 수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도덕은 정의, 논리, 권리에 근거한다는 기존 윤리관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⁹

역사학은 타자에 대해 고유명사 차원에서 접근하고, 커뮤니케티브한 상호변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듣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경유해, 케어링이라는 행위와 이를 떠받치는 케어 이론에 이른다는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역사학이 이러한 잠재성을 모두 흡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의

⁸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필자의 의견은 Odanaka, N., "From Responsibility to Compassion : Lessons from the controversy over 'Comfort Women' in Japan" (*Zeitschrift für Japanisches Recht/Journal of Japanese Law*, 31, 2011)를 참조

⁹ Mayeroff, M., *On Caring* (NY: Harper and Row, 1971); Gilligan, C.,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P, 1982).

미래에는 광대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필드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케어팅으로서의 역사학으로 —이를 사회에 발신하는 것을 비롯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자기도해와 자학, 자기연민에 빠지거나 ‘무용지용’이라는 식으로 팔장난하거나, 사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을 사거나 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